

# 동서문명의 교차로 - 코카사스 알바니아 (Caucasian Albania) 왕성 가발라 유적 발굴기



강사: **김종일**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고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럽 선사 시대 및 중앙 유라시아 선사 시대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 선사 시대 및 고고학 이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유적 조사를 이끌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함께 러시아 연방 투바 공화국 칭게테이 스키타이 쿠르간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2022년부터 아제르바이잔 피줄리 스키타이 쿠르간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Formation and Change of individual identity between the Bell Beaker and the Early Bronze Age in Bavaria, South Germany』, 『한국금속문명사 -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 (4인 공저)』, 『고분부장품에 나타난 초원길의 동서교섭 네트워크』 등이 있다.

.....

중앙 유라시아의 코카사스 산맥과 카스피해 지역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동서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이 지역의 최초 정치체라고 할 수 있는 코카사스 알바니아 (Caucasian Albania)는 대략 기원전 4세기경에 등장하여 기원 후 4세기경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코카사스 알바니아는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사르마티아, 파르티아 등과 긴밀한 문화적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흔적은 코카사스 알바니아의 왕성인 가발라 유적에서 확인된 축성 기법, 무덤 및 무덤 부장품 그리고 인골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강연에서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 이상 진행해 온 발굴 조사 성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의 최초 정치체의 등장과 함께 동서 문명의 교류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